

가을부흥회를 위한 “119기도회”

“신앙의 세 가지 질문”

기도 기간: 9월 29(월) ~ 10월 11일(토) 월~토, 12일간

참여 방법: 1: 하루에 1: 한번 9: 저녁 9시에

10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문을 참고하여
가을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씨앗의 집
서울산정현교회

월요일 기도문 -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위하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시 8:4)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가을부흥회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은 늘 분주하고 마음은 쉽게 흩어지며, 세상의 소리와 일상의 무게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향한 목마름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은혜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번 가을부흥회를 통하여 서울산정현교회가 다시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마음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과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 주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는 회복을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고, 각 가정마다 은혜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찔러 회개와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늘의 응답을 맛보는 체험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준비시켜 주옵소서. 가시덤불 같은 걱정과 돌밭 같은 완고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흙처럼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도록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현실은 바쁘고 몸은 피곤하지만, 그 어떤 상황도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을 빼앗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모든 우선순위를 뛰어넘게 하시고, 하루의 일과 중에도 짧게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붙들고, 가을부흥회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문 - 강사 목사님과 첫날 말씀 집회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 무엇을 할 것인가?”(행 12:21-23)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가을부흥회의 첫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은 단순히 집회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 산정현교회에 새로운 영적 흐름을 여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첫날부터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임재하시고, 예배당 안에 들어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맡으신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한 문장, 한 구절이 성도들의 심령을 찌르고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는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흐르는 땀방울마다 성령의 불이 붙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성도들이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변명과 자기합리화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헤롯처럼 교만하여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새롭게 점검하게 하옵소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

이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어, 단순한 목상이 아니라 삶을 뒤흔드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첫날 집회가 성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세상의 직함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무게 중심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세상에서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도, 주님 앞에서는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에는 작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고 값진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첫날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의 심령이 흔들리고, 가정이 새로워지며, 다음 세대가 도전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첫날 집회가 이번 집회 전체의 성령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되게 하시고, 남은 모든 날들의 집회가 더 큰 은혜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문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 둘째 날 말씀 집회를 위하여

“어떻게 일할 것인가?”(창 45:1-8)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며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눈물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셨음을 보여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주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단순한 일거리와 짐으로 여겼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눈을 열어주셔서, 일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둘째 날 말씀 집회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태도로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 대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정직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의 최종운 담임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목사님의 영광을

을 강건케 하시고, 가을부흥회를 준비하며 이끄시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 주신 비전과 목회의 방향이 이번 집회를 통해 더욱 분명히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또한 함께 섬기는 모든 교역자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영유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수고하는 교역자들이 먼저 말씀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의 사역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교역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새 힘을 공급하시고, 기도의 사람,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곧 예배의 자리가 되고, 가정이 곧 사명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억울함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의 순간에도 주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며 충성되이 일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씨앗이 되게 하시고, 그 씨앗이 백 배의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문 - 가을부흥회를 섬기는 손길들과 셋째 날 말씀 집회를 위하여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갈 5:1)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과 율법의 멍에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기쁨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 교회와 성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주님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환경과 사람의 시선에 묶여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며, 찬양과 감사 대신 한숨을 내쉬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성령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셋째 날 말씀 집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운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모든 성도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눈물 속에서도 찬양이 솟아나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드는 참된 기쁨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합니다.

특순으로 섬기시는 분들과 찬양팀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의 노래와 연주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차 봉사자들**에게는 안전과 인내를

더하시어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을 평안히 인도하게 하옵소서. **안내와 의전 봉사자들을** 통해 주님의 따뜻한 환영이 전해지게 하시고, 처음 오는 이들도 주님의 품에 안긴 듯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방송팀과 음향·영상 담당자들에게는 세밀한 집중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주셔서 말씀과 찬양이 은혜롭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주방에서 섬기는 손길들**에는 기쁨과 건강을 더하셔서 그들의 수고가 사랑의 교제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대표기도자들에게**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기도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송으로 섬기는 이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도들의 눈물을 적시는 고백과 주님의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의 집회가 찬양과 기도, 말씀과 섬김이 하나 되어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봉사자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사모함이 합쳐져 교회 전체가 자유와 감사로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섬김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 기도문 -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영적 공격을 대적하는 기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 언제나 함께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분주한 일상에 쫓겨 주님의 은혜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일에 더 집중하며 영적인 일에는 게을렀던 우리의 태도를 회개합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도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바쁜 일정과 피곤함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기보다 불평과 다툼을 일삼았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이번 가을부흥회를 통해 우리 교회와 가정이 다시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기도의 무릎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된 가정에서 다음 세대가 신앙을 물려받게 하시고, 산정현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을부흥회를 앞두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바쁜 일정과 피곤함, 예상치 못한 시험과 분주함을 보내어 은혜의 자리를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영적 공격을 대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소리, 은혜를 흘뜨리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보혈로 차단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향한 갈망이 흐려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사탄의 모든 계략이 무너지고, 오히려 성령의 불길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길을 잃은 자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옵소서. 재정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가정의 갈등, 신앙의 고민까지 모든 제목이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질 때, 응답의 문이 열리고 간증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응답받는 체험을 통하여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교회 안에 믿음의 고백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서울 산정현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셔서,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가 순종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늘 결단합니다. 어떤 상황과 시험에도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배를 우선으로 삼고, 피곤함 가운데서도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고백을 기억하사, 이번 가을부흥회를 통해 교회와 가정이 함께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요일 기도문 -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영적인 결실을 위하여

우리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며,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높입니다. 시작될 가을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산정현교회 위에 새로운 은혜와 놀라운 열매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종종 흘려보내며 순간의 감동으로만 머물렀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가시덤불과 돌밭에 막혀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품고 구원해야 할 사명을 잊고, 자기 안위와 익숙한 신앙생활에 머물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을부흥회를 앞두고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준비시켜 주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얇게 자라다 시드는 것이 아니라 깊이 뿌리내려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구체적인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가을부흥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무리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지역과 이웃 가운데도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사, 성도들의 기도 불길이 살아나고 말씀 사모함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동시에, 교회의 성장과 다음 세대의 부흥,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이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가시적인 부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붙들린 제자로 세워지는 부흥을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대와 세대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에서도 성도들이 정직과 사랑으로 주님을 증거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적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모두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시고, 전교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준비된 심령으로 모이게 하옵소서. 이번 가을부흥회를 통해 주님이 허락하실 영적 결실을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영적 부흥이 우리 산정현교회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일의 집회가 교회의 새 시대를 여는 은혜의 도화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번 가을부흥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노트 (개인, 가정, 전도대상자 등을 위하여 기도제목을 미리 준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제목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가정 기도제목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전도대상자, 그외 기도제목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서울산정현교회 2025 가을부흥회

“신앙의
세 가지 질문”

	12일(주일) 저녁 7:00	13일(월) 저녁 7:30	14일(화) 저녁 7:30
경 배 와 찬 양	리조이스 찬양단	샬롬 찬양단	솔티 찬양단 (청년부)
기 도	박성규 장로	서웅 안수집사	임희정 권사
특 순	시온찬양대	이창현 안수집사	여전도회 임원
말 씬	어떤 사람이 되어 무엇을 할 것인가? (사도행전 12:21-23)	어떻게 일할 것인가? (창세기 45:1-8)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5:1)
합심기도	개인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시 8:4)